

# 山村 研究의 動向과 方法論

玉 漢 錫\*

『目

- I. 序 論
- II. 韓國 山村의 研究意義
- III. 山村 研究의 動向
  - (1) 森林生態
  - (2) 山地에 的 適應
  - (3) 山地農業

次》

- (4) 山村研究
- IV. 山村研究의 方法論
  - (1) 空間分析과 生態學的 接近
  - (2) Ecosystem과 Community
  - (3) 山地生態系와 山村研究
- V. 結 論

## I. 序 論

韓國은 國土의 약 70%가 山地이며 그 중 500 ~1,000m의 高地가 20%나 된다. 이곳 山地에서 사람들이 山村을 이루고 살고 있다. 山間地의 鑛山資源을 개발하는 과정에서 성립된 鑛山聚落이나, 높은 고갯마루를 넘나드는 交通路의 입구에 생겨난 嶺聚落까지도 山村이라 이름 붙일 수 있겠다.

그러나 山村은 山間地를 개척하여 그곳에 농사를 짓고, 또한 山林에서 여러가지 林產物을 이용하는 村落이라고 일컬어야 할 것이다. 즉 山地農業・林業을 토대로 이루어진 村落을 말한다. 그러기에 山村은 山地라는 自然的・立地的特性을 지니고 있는 것이다. 山村은 山林으로 덮힌 山間地域을 개척하여 사람들이 터를 잡고 살고 있는 社會라고도 말할 수 있다. 그의 開拓過程이 복잡할수록 山村의 形態와 機能은 다양해 질 것이고 山村住民의 生活樣式도 각양각색이 될 수 밖에 없다. 물론 山村은 過去나 現在나 그 정도에는 차이가 있을지 모르나 外部의 平野地나 海邊의 村落과 상호 영향을 주고 받는 관계에 있다고 해야 할 것이다.

오늘날 이들 山村에 살고 있는 人口는 南韓만 보더라도 全人口의 1% 내외에 불과하다. 都市化나 產業化가 급속히 진행되어 많은 인구가 都市로 집중하고 都市問題가 심각해져 가고 있는 관계로 山村에 관한 研究는 상대적으로 활발하지 못하다.

그러나 本研究에서는 韓國의 山村을 왜 研究해야 하나 하는 山村研究의 意義를 생각해 보고 國內・國外의 山村 研究動向을 살펴보아 어떠한 接近方法으로 山地住民의 生活樣式을 밝혀 낼 수 있을까를 논의해 보고자 한다. 國土利用의 效率性 提高라는 측면에서 山間地帶의 寡疎問題를 거론하고 있기도 하나<sup>1)</sup>, 本研究에서는 文化地理學의 意義를 찾아보려는 것이다.

## II. 韓國 山村의 研究意義

山村은 山間의 森林地에 立地하고 있는 관계로 교통이 불편하고, 山地高度가 높아짐에 따라 기온이 낮아지며 日照時數가 적고, 바람이 심할 뿐 아니라 生育期間이 짧고 傾斜가 급해 土壤流失이 비교적 많은 곳이다. 따라서 農事를 애초부터 지으며 살기 위해 입산하기에는 많은 제약이 따른다고 보아야 하겠고, 어떤 특정한 이유

\* 江原大學校 師範大學 地理教育科 專任講師

1) 李漢淳, 1984, “寡疎・過疎 地域의 諸問題와 對策：江原地域을 事例로,” 地理學論叢, 서울大 社會大 地理學科, 제11호, p. 40.

때문에 耕地開拓을 하였다고 생각된다. 그리고 당시의 農業技術水準이나 山地에 보다 잘 적응할 수 있는 作物의 보급에 크게 좌우되었을 것이며, 開拓地域도 대단히 제한되어 있었을 것으로 본다. 결국 山間地를 개척해 나간 歷史는 平野地의 그것보다 짧다고 해야 하겠으며, 그 過程도 山地라는 自然制約 때문에 꼭 단순하다고 보겠다.

따라서 山村을 연구하는 일은 무엇보다 山村住民의 耕地 開拓過程을 보다 쉽게 이해하는 것이 되고, 이는 나아가 韓國의 耕地 開拓過程과 村落의 變化를 알 수 있는 하나의 길잡이 구실을 하게 될 것이다. 왜냐하면 韓國의 農耕地 開拓은 山林을 개간하여 차츰차츰 그 면적을 넓혀가는 과정이었으며, 村落의 성립도 지역적인 차이는 있겠지만 小河川 부근의 구릉성 산지 부근에 우선 입지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濕地보다는 山田 즉 山間地의 구릉지를 개간하여 熟田化하고 거기에 다시 물을 대어 논을 만드는 과정을 걸었다는 것이다. 이미 논으로 일구어 놓은 이후에 人口增加 등의 요인에 의해 다시 周邊山林을 개간하여 밭으로 일구어 가는 과정도 생각해 볼 수 있다. 朝鮮初期에 滅 등과 같은 灌溉施設을 널리 보급하고 보다 발전된 施肥法을 장려하였음에 불구하고 「世宗實錄地理志」에 의한 논과 밭의 비율이 전국적으로는 28 對 72에 불과하였으며<sup>2)</sup> 강수량이 비교적 풍부한 全羅道의 경우에도 水田이 十分之四 정도에 지나지 않았다는 사실은 高麗時代와 그 이전의 사람들이 오랫동안 밭농사를 하며 살아왔다고 하는 것을 말해 주고 있다. 이러한 주장이 다소 무리일지는 모르나 麗末鮮初가 旱田農業에서 水田農業으로 서서히 전환해 가는 시기였다는 점은 여러 사람

이 지적하고 있다.<sup>3)</sup> 밭을 일구는 과정은 山林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여하튼 耕地를 개척해 나가는 과정이란 최초에 정착을 하여 주위의 耕地를 확대시켜 나가면서 가옥을 증가·확산시켜 가는 과정인 셈이다. 耕地擴大나 가옥의 分派 方向이 있을 수 있고, 集村에서 散村이나, 散村에서 集村으로 바뀌었느냐 하는 문제와도 결부된다. 특히 가옥이 응집되는 과정은 親族集團의 分家와 同族結合의 영향을 받을 경우가 많다. 결국 耕地開拓 過程은 聚落의 起源과 發達形成 過程을 말한다고 보아도 무방할 것이다.

聚落의 發達過程을 밝힌 研究는 흔치 않다. 이들은 100戶 이내의 村落을 대상으로 耕地의擴大, 家屋의 分派 등을 다루고 있다. 入鄉祖가 주변의 숲을 개간하여 터를 잡고 耕地화가 시작되었다고 하며<sup>4)</sup>, 耕地와 家屋의 分派가 高地에서 低地로 擴大·擴散되어 나갔다고 한다.<sup>5)</sup> 李廷滿은 光平村에 있어서 總耕地面積 중 畔의 비율이 1719년에서 1915년 사이 田에 비하여 현저히 증가하였으며 이는 灌溉技術의 發達에 기인한다고 추정하고 있다.<sup>6)</sup>

그러나 이들 연구조차도 대개 農業의 發達이나 作物 및 農機具의 보급 과정 등을 고려하여 다루지 못하였기 때문에 단순히 耕地의 규모나 家屋의 分布變化를 밝히는데 머무르고 만 것이다. 이것은 研究地域의 地理的縮尺(Geographical Scale)이 큰데도 연유하겠지만, 아무래도 研究地域이 低地의 平野地帶이어서 山村보다는 村落形成의 歷史가 길고 展開過程도 많은 요인이 작용하여 더욱 복잡했기 때문에 쉽게 밝혀내지 못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韓國의 山間地域에서 행하여진 農業으로 자주

2) 宮嶋博史, 1980, “朝鮮農業史上における 15世紀,” 朝鮮史叢, 第3號, p. 46.

3) 金相昊, 1969, 朝鮮初期의 水田農業 研究: 粗放의 農業에서 集約의 農業으로의 轉換, 文敎部 學術研究 助成費에 의한 研究報告書.

李泰鎮, 1979, “14·5세기 農業技術의 發達과 新興士族,” 東洋學, 제 9호, pp. 15-34.

李泰鎮, 1981, “16세기 川防(洑)灌溉의 발달: 土林勢力 대두의 經濟的 背景 一端,” 韓治勳 博士 停年記念史學論叢, 知識產業史, pp. 343-370.

4) 柳濟憲, 1979, “農村景觀의 形態的研究: 義州·利川地方을 中心으로,” 地理學論叢, 서울大 社會大 地理學科, 제 6호, p. 102.

5) 楊普景, 1980, “半月面四里 同族部落에 대한 研究: 起源과 發達過程을 中心으로,” 地理學論叢, 서울大 社會大 地理學科, 제 7호, pp. 38-51.

6) 李廷滿, 1983, “元平村의 景觀變化에 對한 研究,” 서울대 碩士學位論文, p. 57.

입에 오르내리는 것은 火田農業이다. 이는 山林을 伐採하여 말린 후 거기다 불을 놓아 林木과 地表植生을 태워버린 그 火跡地에 耕種하다가 地力이 쇠퇴하면 다시 移動하는 農耕方式으로 热帶나 亞熱帶에서 이루어지는 移動式 火耕農業(shifting cultivation)과 상당히 유사하다.

우리나라 火田의 起源은 명확치 않으나 三國史記에 기록된 「白田」이나 高麗時代의 「再易田」 등을 火田의 일종이라고 생각할 정도로<sup>7)</sup> 火田의 歷史가 길다고 볼 수 있다. 즉 火田을 일구어 熟田化하거나, 地力이 쇠퇴하여 다른 火田을 개척하려 이동하든지 간에, 山林을 伐採한 것에 불을 질러 농사를 짓는 생활 양식은 古代로부터 최근까지 꾸준히 지속되어 온 것 같다.

이미 連作法이 전국적으로 차듯 광범위하게 이루어진 朝鮮中期에도 강원도 山間地域에 火田耕作이 이루어지고 있었다는 史實은<sup>8)</sup> 어떤 이유에 의해서건 農業技術의 지역적인 차이가 오랫동안 있어왔다는 것을 뜻한다. 火田農業이 社會的 政治的 理由로 말미암아 農土를 잊은 사람이 山間 깊숙히 이주하여 森林을 伐採, 燒却하여 耕地를 조성하거나 定住하는 일시적 과정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다시 말해 麗末 아래로 休閑農法을 서서히 극복하여 常耕農法으로 발전해 오긴 하였으나, 부분적으로 火田을 행하여 오던 중<sup>9)</sup> 人口增加나 流入, 森林政策 등의 영향을 받아 단지 그 面積의 축소나 확대가 이루어졌을 것으로 생각된다. 朝鮮後期나 日帝初, 6·25動亂 직후 火田이 급증하였다.<sup>10)</sup> 이를 단지 사회적인 피난처를 찾기 위해 입산하고 火田을 일구게 되었다고 설명하기에는 미심쩍은 부분이 많다. 森林政策이 해이해졌다던가 처음부터 熟田을 일구기에는 손이 너무 모자랐다던가, 山地에 보다

쉽게 적용할 수 있는 새로운 作物이 보급되어 火田農業의 확대를 촉진하게 되었다던가 하는 여러 문제들이 풀리지 않은채로 남아 있는 것이다.

해발고도가 높은 한랭한 高山地帶에 적합한 火田作物로 귀리(燕麥), 감자(馬鈴薯), 옥수수(玉蜀黍) 등을 품고 있다. 특히 韓國에서는 해발고도 900m의 고지대에 걸쳐 수확량의 극대 현상을 보이는 감자는 1796년경 北關을 통해 韓國에 도입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sup>11)</sup> 耐寒性이 강하고 栽培方法이 간편한 감자와 옥수수의 도입이 火田의 擴大를 산간 깊숙히까지 이루어지게 했을 可能性도 있다.

火田農業을 火田作物의 構成을 중심으로 根裁型, 雜穀型, 陸稻卓越型의 3類型으로 나누기도 한다.<sup>12)</sup> 韓國의 火田農業이 어떤 유형에 속하는 것인지는 둘째치고 火田耕作과 作物과의 관계를 時系列의 으로 살펴 볼 필요가 있다고 본다.

이미 歲耕을 하는 지역이 부분적으로 제한되어 있던 山間地域은 급격한 人口의 流入으로 말미암아 火田이 더욱 증가하게 되었으나 그후 旱生種 水稻가 보급되게 됨에 따라 耕地開拓에 새로운 轉期를 맞게 된다. 다시 말하자면 山地의 寒冷한 氣候에 잘 적응할 수 있는 벼 품종의 보급과 이를 재배할 수 있는 技術의 습득은 火田에 의하여 일구어진 山田이 농으로 탈바꿈하는 계기가 된다<sup>13)</sup>고 할 수 있다. 이것은 결과적으로 山村住民의 증가를 가져오게 하고, 灌溉水路 등 農業 景觀上에 많은 변화를 초래하게 되었다. 특히 상업 작물인 고냉지 작물류를 최근에 재배하게 됨에 따라 山村住民의 生活에 또 다른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 그들의 土地所有 關係와 耕地利用 패턴, 農機具, 家屋構造, 日常生活周期 (daily life cycle), 農事曆 (agricultural calendar)

7) 趙東奎, 1966, “韓國 火田의 分布,” 地理學, 제 2 호, 大韓地理學會, p. 59.

8) 成宗實錄, 卷 59, 6年 9月 庚戌,

司諫朴崇質啓曰 臣嘗爲江原道都事 本道 大嶺橫亘南北 郡縣列於山麓 終日行見民家僅一二 且民無久耕之田 皆於山頂 斫去林木 火而耕之 不過一二年 地力竭棄而之代民生苦 此地爲甚」(傍點: 引用者).

9) 金泰永, 1983, 朝鮮前期 土地制度史研究, 知識產業社, pp. 214-216.

10) 江原道 平昌郡 珍富面 凤山里的 崔준규(73세)翁, 長田里의 鄭규봉(62세)翁, 道岩面 龍山 1里의 金달식(73세)翁 등의 진술을 토대로 한 것임.

11) 吳洪哲, 1984, “太白山地의 山村에 관한 研究,” 地理學研究, 韓國地理教育學會, 제 9 칡, p. 144.

12) 李文鍾, 1977, “稻作의 起源과 傳播에 關한 一考察: 稻의 韓半島에 來의 傳來源流,” 公州師範大學 論文集, 제 15 칡, p. 212.

13) 江原道 平昌郡 龍坪面 白玉浦里의 河撰奎(71세), 翁珍富面 尺川里의 金삼봉(76세)翁의 진술을 정리한 것임.

등 山村의 形態와 機能에 또다시 많은 變化를 가져오게 되었다.

고령지 채소의 재배는 물론 山村 내부에서 자생적으로 이루어진 것이라기 보다는 產業化와 都市化가 가져온 외적인 요구에 기인하는 것이다. 그 이전에도 平野地帶의 村落이나 都市와 서로 영향을 주고 받았던 사실(예, 소금과 잡곡의 交易)도 있었으나, 현재의 고령지 채소와 도시와의 관계와 같이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었던 적도 드물었을 것이다. 그러나 고령지 채소의 재배는 그 이전의 火田農業 등과 같은 여러 가지 耕作方法에 의하여 耕地開拓이 이루어져 있었기 때문에 보다 쉽게 이루어졌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결국 비교적 고립되어 있고, 인구규모가 작을 뿐 아니라 개척의 역사가 짧으므로 山村研究는 山地를 개간하여 農事를 지어 온 歷史를 平野地의 村落보다도 손쉽게 풀어 볼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즉 韓國의 村落發達過程은 山地開拓이나 山地農業과 불가분의 관계를 맺고 있다고 생각하므로, 山村의 形成過程을 밝히는 것은 오늘날 山間에 분포하고 있는 다양한 형태와 기능을 가진 山村과 山地 生活樣式을 究明하는 것이 되고, 이는 나아가 韓國村落의 여러 가지 形態와 機能 및 村落社會의 일면을 이해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고 생각된다.

### III. 山村研究의 動向

山村(montane settlement)이라고 제목을 붙인 國內外의 연구는 몇 편에 불과하지만, 山地라고 하는 자연적 조건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의 다양한 生活樣式을 밝히기 위해 여러 각도에서 다양하게 山村을 연구하고 있다. 森林生態라든가 山地農業, 山地에의 적응 등을 결국 山村社會

를 보다 체계적이고 科學的으로 밝히기 위한 여러 갈래의 길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 (1) 森林生態

森林生態(forest ecology)란 하나의 獨立된 學問分野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여러 논문에서 단편적으로 다루게 되는 것은 사람들이 森林을 개척하여 살게 되는 과정이 森林生態에 영향을 끼치게 되어, 전체 山地 生態系(mountain ecosystem)가 變化의 흔적을 남길 수 밖에 없다는데 있다. 사실 山地는 복잡한 生物群落(biotic community)이 분포하는 곳이다. 垂直的인 變化(vertical biotic zonation), 불규칙한 生物分布(biotic distribution), 地形·氣候의 特性 등은 산지주민의 생활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품을 수 있으며, 高山地帶(alpine or subalpine forest)에서는 動·植物의 生體量(biomass)이 낮다고 한다.<sup>14)</sup>

반드시 先驅植物(pioneer species)에 의해서라고 할 수는 없지만, 어떤 山地에 先驅植物이 들어와 그곳의 氣候·土壤에 알맞은 상태로 도달한 極相(climax community)은 火災, 폭풍, 병충해, 伐採, 土地開墾(land clearing), 새로운 식물과 동물의 채집과 수렵 등으로 말미암아 2次遷移(secondary succession)가 이루어진다고 한다.<sup>15)</sup> 이중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火災에 의한 干擾(disturbance)이다.<sup>16)</sup> 산불이 나게 되면, 土壤水分과 영양분이 감소하여 전염병이나 병충해의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크다고 하며, 산불에 강한 樹種이 火跡地에 들어서게 되고 빈번하게 산불이 나면 결국 草地가 형성된다고 한다. 게다가 산불의 高度에 따른 發生頻度差는 山地 樹種의 차이를 낳을 수 밖에 없다고 하였다. 물론 이러한 제 2차 森林遷移는 土地開墾에 의해 뚜렷이 나타난다고 하며,<sup>17)</sup> S.H. Spurr는

14) Moran, E.F., 1979, *Human Adaptability: An Introduction to Ecological Anthropology*, Belmont: Duxbury Press, pp. 142-147.

15) Spurr, S.H. and Barnes, B.V., 1980, *Forest Ecology*, (3rd ed.), New York: John Wiley & Sons, p. 421.

16) Ahlgren, I.F. and Ahlgren, C.E., 1960, "Ecological effects of forest fires," *Botanical Review*, Vol. 26, pp. 483-533.

Cooper, C.F., 1961, "The ecology of fire," *Scientific America*, Vol. 204, pp. 150-160.

Gillison, A.N., 1969, "Plant succession in an irregularly fired grassland area—Doma Peaks region, Papua," *Journal of Ecology*, 57, pp. 415-428.

17) Cooper, C.F., 1960, "Changes in vegetation, structure and growth of southwestern pine forests since white settlement," *Ecological Monographs*, Vol. 30, pp. 129-164.

原植生을 伐採하여 開墾한 후 주민들이 다른 지역으로 移住해 버리고 나자 남게 되는 植生을 잘 묘사하고 있다.<sup>18)</sup> 물론 이것은 특정 山地의 植生 分布 特徵과 歷史를 알아야만 가능한 것이다.<sup>19)</sup> 山地의 氣候에 관하여서는 다수의 논문이 군데군데 언급은 하고 있는데, 高度와 季節에 따른 早魃과 冷害 정도의 차이를 설명하면서 그것에 견디어 낼 수 있는 많은 植物과 作物을 소개하고, 早魃이 심할 때 산불이 자주 나, 그 결과 이루어진 高地의 草地는 산림보다 低地로 이동하는 친 氣流를 막는데 큰 효과가 없다고 하였다.<sup>20)</sup>

## (2) 山地에의 適應

山地라는 自然的, 立地的 特性이 人間이나 그의 活動에 주는 제약은 여러가지가 있다. 그중 高度가 높아짐에 따라 대기압이 낮아져 酸素가 부족해지게 되면 그곳에 사는 사람은 많은 신체적인 변화를 겪게 된다.<sup>21)</sup> 호흡이 가빠진다거나, 애초에 高地에서 태어난 원주민은 低地帶의 사람보다 폐활량이 크다던지, 피속의 헤모글로빈의 양이나 모세관의 삼투압이 증가하게 되는 것

이다. 달리 말하자면 안데스 산맥 高地에 사는 원주민은 파도한 운동으로 숨이 가쁜 운동선수와 같은 처지에 놓여 있다고 볼 수 있다.<sup>22)</sup> 酸素缺乏(hypoxia)은 결국 山地生活에 영향을 주게 되고, 그들의 食事(diet)가 영양가 높은 탄수화물의 섭취를 요구하게 되는 것이다.<sup>23)</sup> 안데스 산지의 주민들이 코카(CoCa)를 씹는 버릇은 코카가 혈관 수축과 상당히 관련되어 있어 추위를 견디게 해주기 때문이라고 하며<sup>24)</sup>, 코카가 고탄수화물, 저단백질, 저칼로리 식품인 관계로 탄수화물의 섭취를 늘리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sup>25)</sup>. 하여튼 산소의 결핍으로 말미암아 出產率이 낮아지게 되고, 新生兒 死亡率이 높아지게 될 뿐아니라 어린이의 發育度도 낮아진다고 말하고 있으나, 그 이유는 명확하게 밝혀져 있지 않다.<sup>26)</sup> 다만 高度에 따른 酸素缺乏과 유관한 것은 분명하다.<sup>27)</sup>

山地의 추위 또한 高山地帶의 住民들에게 많은 영향을 끼치고 있다. 신체적으로 이를 극복하기 위해 皮下에 지방질이 많이 쌓이는 生理的 인 變化를 겪기도 되지만<sup>28)</sup> 추위는 색다른 의복

- 18) Spurr, S.H., 1956, "Forest associations in the Harvard Forest," *Ecological Monographs*, Vol. 26, pp. 245-262.
- 19) Hope, G.S., 1973, "The vegetation history of Mt. Wilhelm, Papua New Guinea," *Journal of Ecology*, Vol. 64, pp. 627-663.
- Paijmans, K. and Loffer, E., 1972, "High altitude forests and grasslands of Mt. Albert Edward, New Guinea," *Journal of Tropical Geography*, Vol. 34, pp. 58-64.
- Smith, J.M.B., 1975, "Mountain grasslands of New Guinea," *Journal of Biogeography*, Vol. 2, pp. 27-44.
- 20) Brown, M. and Powell, J.M., 1974, "Frost and drought in the Highlands of Papua New Guinea," *Journal of Tropical Geography*, Vol. 38, pp. 1-6.
- 21) Frisancho, A.R., 1975, "Functional adaptation to high altitude hypoxia," *Science*, Vol. 187, pp. 313-319.
- 22) Hurtado, A., 1964, "Animals in high altitudes: resident man," in *Handbook of Physiology: Adaptation to the Environment*, (ed., D.B. Dill), Washington, D.C.: American Physiological Society, pp. 844-854.
- Grover, R.F., 1974, "Man living at high altitudes," in *Arctic Alpine Environments*, (eds., J.D. Ives and R.G. Barry), London: Methuen, p. 823.
- Mazess, R., 1975, "Human adaptation to high altitude," in *Physiological Anthropology* (ed., A. Damon),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p. 175.
- 23) Grover, R.F., op. cit., p. 826.
- 24) Mazess, R., op. cit., p. 177.
- 25) Hanna, J., 1976, "Natural exposure to cold," in *Man in the Andes* (eds., P.T. Baker and M. Little), Stroudsburg, Pa: Dowden, Hutchinson, and Ross, p. 370.
- 26) Hoff, C.J. and Abelson, A.E., 1976, "Fertility," in *Man in the Andes* (eds., P.T. Baker and M. Little), Stroudsburg, Pa: Dowden, Hutchinson and Ross, p. 134.
- 27) Moran, E.F., op. cit., p. 153.
- 28) Hanna, J., 1968, "Cold stress and microclimate in the Quechua Indians of Southern," in *High Altitude Adaptation in a Peruvian Community* (eds., P.T. Baker et al.), Occasional Papers in Anthropology, No. 1, University Park: Pennsylvania State University, p. 220.

을 고안해서 입거나<sup>29)</sup> 주로 낮에만 일을 한다든지<sup>30)</sup> 흙 벽돌집(adobe house)을 지어 살기도 하는<sup>31)</sup> 등 어느 정도 극복을 할 수가 있다. 추위 이외에도 日較差가 심하고 기후가 건조하며 토양이 매말라 農事에 적당하지 않을 수 있다. 안데스나 히말라야 山地의 原住民은 이것을 극복하기 위하여 알파카(alpaca), 야아크(yak), 라마(llama)는 高地帶에서, 소나 말은 低地帶에서, 양은 그 중간 점이지대에서 방목을 하여 낙농제 품과 식량을 교환하며 살아간다고 한다.<sup>32)</sup> 특히 이들 동물의 배설물(dung)은 연료나 거름으로 이용한다.<sup>33)</sup> 農事의 豊凶에 따라 여기저기 이동을 하기도 하며, 평소에 농작물을 교환하고 季節的인 이동을 하기 위해 族外婚이나 地域婚(*regional endogamy*)의 관습이 있게 되는 것이다.<sup>34)</sup> 그 이외에 토양이 습하도록 밭고랑을 얕게 만다든지(qochavina) 거름을 준다든지 하고<sup>35)</sup>, 서리에 잘 견딜 수 있는 작물로서 감자 등을 재배하게 된다. 山地에서의 生計를 유지하기 위한 農事曆(*agricultural calendar*)도 뚜렷이 구별된다.<sup>36)</sup> 그러나 안데스 고지를 중심으로 한 지역에서의 농업 경영 방식에 대한 연구는 山地의 適應이라는 관점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 파푸아 뉴우기니의 山地農業 發達史 研究와는 많은 차

이를 보이고 있다.

### (3) 山地農業

뉴우기니섬이 세상에 알려진 지는 비교적 오래되지 않고 전문가가 조사한 것은 1930년대이다. 그후 人類學者, 民俗學者, 地理學者, 民族誌學者 등에 의하여 종합적인 연구 보고서가 간행되고<sup>37)</sup> 많은 연구 자료가 쌓여 뉴우기니 원주민의 생활상을 설명하려고 애쓰게 되었다.

그중 뉴우기니의 農業이 원래 어떠한 모습이었고, 얼마나 다양한 패턴을 보이고 있었으며, 새로운 作物의 보급과 西歐人의 渡來에 따라 어떻게 變化하여 오늘에 이르게 되었는가 하는 문제에 초점을 맞춘 연구가 비교적 많다. 여기에 선구적인 역할을 한 이가 H.C. Brookfield이다. 그가 중앙 뉴우기니(Central New Guinea)의 31개 지역에 있어 다양한 農業活動에 관한 26개 항목의 明細書(inventory)를 작성하여 각 지역을 서로 비교하여 본 것을<sup>38)</sup> 시초로, 地方史(local history)의 구명이라는 관점에서 이들의 農業 패턴을 발달의 정도에 따라 엮어 내는데 어느정도 성공하게 되었다. 뉴우기니가 热帶地方인 것은 사실이나 海岸, 低濕地 등 自然條件이 다양한 관계로 耕作技術에 상당한 차이가 나게 되지

29) Hanna, J., op. cit., p. 309.

30) Baker, P.T., 1966, "Ecological and physiological adaptations in indigenous South Americans," in *The Biology of Human Adatability* (eds., P.T. Baker and J.S. Weiner), Oxford: Clarendon Press.

31) Baker, P.T. et al., 1968, op. cit., p. 18.

32) Downs, J. and Ekwall, R., 1965, "Animals and social types in the exploitation of the Tibetan Plateau," in *Man, Culture and Animals* (eds., A. Leeds and A. Vayda), Washington D.C.: American Association for the Advancement of Science, pp. 175-177.

33) Orlove, B., 1977, "Integration through production: the use of zonation in Espinar," *American Ethnologist*, Vol. 4, p. 93.

34) Moran, E.F., op. cit., p. 166.

35) Orlove, B., op. cit., pp. 95-96.

36) Thomas, R.B., 1976, "Energy flow at high altitude," in *Man in the Andes* (eds., P.T. Baker and M. Little), Stroudsburg, Pa.: Dowden, Hutchinson and Ross, p. 383.

37) Watson, J.B. (ed.), 1964, "New Guinea: the Central Highlands," *American Anthropologist*, Vol. 66, (special issue), 329p.

Brookfield, H.C. and Hart, D., 1971, *Melanesia: a Geographical Interpretation of an Island World*, London: Methuen & Co. Ltd., 464p.

Brookfield, H.C. (ed.), 1973, *The Pacific in Transition: Geographical Perspectives on Adaptation and Change*, London: Edward Arnold, 332p.

Bayliss-Smith, T.P. and Feachem, R.G. (eds.), 1977, *Subsistence and Survival: Rural Ecology in the Pacific*, London: Academic Press, 428p.

38) Brookfield, H.C., 1962, "Local study and comparative method: an example from Central New Guinea," *Annals, Association of American Geographers*, Vol. 52, pp. 242-254.

만, 대개 수렵과 채집으로부터 移動式農業(shifting cultivation)이나 園藝農業(horticulture)으로, 다시 集約的 農業(intensive gardening)으로變化해 왔다고 보게 되었다.<sup>39)</sup> 이들의 農業은 주로 根栽作物인 감자, yam, taro 등을 山地에서 재배하는 과정에서 비롯한 것이라고 하며, 특히 外來作物인 감자가 도입됨에 따라 그 이전의 taro나 yam, manioc, 사탕수수(sugar cane) 등은 여러가지 이유로 이들 각각 作物의 植物的 인 특성에 따라 재배면적이 좁아지게 되었으며, 특히 감자가 돼지 사료로서의 우위를 차지하게 되어 部族社會의 變化까지 초래하게 되었다고 한다. 이것은 감자의 전래에 따른 급격한 人口增加의 產物이라고까지 주장하게 되었으나 通時의 資料의 부족으로 새로운 假設을 모색하게 되었다.<sup>40)</sup>

뉴우기니의 山間地帶 農業이 粗放的 農業에서 集約的 農業으로 바뀌는 過程을 E. Boserup의 모델이나, C. Geertz의 理論을 빌어 說明하기도 하였으나, 農業生產이 人口增加 이외의 요인 즉 社會的인 產物(social production)을 치르기 위해서도 필요하며, 어떤 특정 農業技術을 채택할 때에는 그 지역의 環境이 獨립적인 變數로 작용하고 있음을 더욱 명확히 해야 한다고 하였다.<sup>41)</sup> 물론 이들의 理論的 說明 試圖는 여러 인접한 주체들의 축적된 연구 산물이다. 뉴우기니에서의 人口移動과 植物과의 관계에 관한 것<sup>42)</sup>이라든가, 食糧 作物<sup>43)</sup> 및 그의 起源과 傳來<sup>44)</sup>, 移動式 農業<sup>45)</sup>에 관한 것 등 여러가지가 있다. 게다가 과거에 존재했던 植物의 年代測定<sup>46)</sup>에서부터 土壤의 肥沃度를 유지하는 耕作技術<sup>47)</sup>이나 灌溉水路의 利用方法<sup>48)</sup>, 서리(霜)를 극복하는

- 39) Brookfield, H.C., 1964, "The Ecology of highland settlement: some suggestions," *American Anthropologist*, Vol. 66, pp. 20-38.
- Watson, J.B., 1965, "From hunting to horticulture in the New Guinea Highlands," *Ethnology*, Vol. 4, pp. 295-309.
- Clarke, W.C., 1966, "From extensive to intensive shifting cultivation: a succession from New Guinea," *Ethnology*, Vol. 5, pp. 347-359.
- Watson, J.B., 1967, "Horticultural traditions of the Eastern New Guinea Highlands," *Oceania*, Vol. 38, pp. 81-98.
- Smith, J.M.B., 1977, "Man's impact upon some New Guinea mountain ecosystems," in *Subsistence and Survival* (eds., T.P. Bayliss-Smith and R.G.A.), Feachem, London: Academic Press, pp. 185-214.
- 40) Brookfield, H.C. and White, J.P., 1968, "Revolution or evolution in the prehistory of the New Guinea Highlands," *Ethnology*, Vol. 7, pp. 43-52.
- 41) Brookfield, H.C., 1972, "Intensification and disintensification in pacific agriculture: a theoretical approach," *Pacific Viewpoint*, Vol. 13, pp. 30-48.
- 42) Robbins, R.G., 1963, "Correlations of plant patterns and population migrations into the Australian New Guinea Highlands," in *Plants and the Migrations of Pacific Peoples* (ed., J. Barrau), Honolulu: Bishop Museum Press, pp. 282-294.
- 43) Watson, J.B., 1964, "A previously unreported root crop from the New Guinea Highlands," *Ethnology*, Vol. 3, pp. 1-5.
- 44) Keleney, G.P., 1962, "The origin and introduction of the basic food crops of the New Guinea people," *Papua and New Guinea Agricultural Journal*, Vol. 15, pp. 7-13.
- 45) Newton, K., 1960, "Shifting cultivation and crop rotations in the Tropics," *Papua and New Guinea Agricultural Journal*, Vol. 13, pp. 81-118.
- 46) Bulmer, S., 1964, "Radiocarbon dates from New Guinea," *Journal of the Polynesian Society*, Vol. 73, pp. 327-328.
- Golson, J., Lampert, R.J., Wheeler, J.M. and Ambrose, W.R., 1967, "A note on carbon dates for horticulture in the New Guinea Highlands," *Journal of Polynesian Society*, Vol. 76, pp. 369-371.
- 47) Nye, P.H. and Greenland, D.J., 1960, "The soil under shifting cultivation," *Technical Communication*, Vol. 51, pp. 1-156.
- Clarke, W.C. and Street, J.M., 1967, "Soil fertility and cultivation practices in New Guinea," *Journal of Tropical Geography*, Vol. 24, pp. 7-11.
- 48) Feachem, R.G.A., 1973, "The pattern of domestic water use in the New Guinea Highlands," *South Pacific Bulletin*, Vol. 23, pp. 10-14.

방법<sup>49)</sup>, 原始部族의 言語<sup>50)</sup>, 農耕道具<sup>51)</sup>, 심지  
어 陶器<sup>52)</sup>에 관한 많은 연구까지도 이를 뒷받침  
하고 있는 것이다.

#### (4) 山林研究

山村의 分布 패턴과 高度에 따른 限界는 氣候  
나 土質, 疾病 등의 많은 요인의 영향을 받는다  
고 했으며<sup>53)</sup>, 뉴우기니의 村落은 규모가 20여  
戶에서부터 300戶에 이르는 部族集團이라고 한  
다. 이들 부족은 다시 여러 氏族(clan or sub-  
clan)들로 이루어져 있으며<sup>54)</sup>, 각 家屋은 父系  
나 母系集團으로 나누어져 있는 것이다.<sup>55)</sup> 또한  
各部族은 서로 경계선을 두고 領土擴張을 피해  
分爭을 일삼는데 뉴우기니 山地의 草地가 오랫  
동안 불을 질러 경작을 일삼아온데도 그 이유가  
있지만, 이러한 전쟁에 의한 것이라는 주장도  
있다.<sup>56)</sup> 특히 뉴우기니의 전통적인 거주지 패턴  
은 어떤 영속적인 집단의 소유가 아닌 일시적인  
부탁으로 분산되어 있는 형태를 취한다고 한  
다.<sup>57)</sup> 部族 내에서도 階級의 분화가 이루어지게  
된 것은 交易物을 지배, 조절하게 된 데서 비롯

했다고도 한다.<sup>58)</sup> 高度에 따른 農耕方式이 서로  
다르고, 상호간의 교역에 의해서 이를 사회가  
유지되는 Tibet 高地의 山村社會는 서로가 다른  
자연 환경에 적응한 결과라고 말한다.<sup>59)</sup>

일본에서는 비교적 山村研究가 오랫동안 여러  
사람에 의해 진행되어 왔는데 주로 「山村」과 「原  
始型 山村」으로 구분하여 연구한다. 산악지역에  
위치한 마을을 총칭하여 「山村」이라고 부르지만  
특별히 그 原初形態가 移動性을 동반한 것을 고  
려해 「原始型 山村」이라 이름붙이고, 그의 유형  
으로 木器製品을 생산하는 木地屋村, 벳돼지·  
사슴·곰 등을 사냥하는 狩獵村, 火田을 하는  
燒田經營村, 砂鐵을 製鍊하는 다다라(タタラ)村  
등을 들고 있다.<sup>60)</sup> 시코쿠(四國)山岳地方에 있어  
인구가 감소함으로 해서 土地利用이 변하고 山  
村이 해체되며, 林地의 개발에 따라 林業地域에  
편입되는 과정등을 지역이 분화되고 복합되는,  
일종의 進化 형태로 보려고 하기도 하였으며<sup>61)</sup>,  
단바(丹波) 高地 東部에 생긴 3개의 廢村을 비  
교 연구하여, 인구 이출과 경지 황폐에 따른 廢  
村化 過程을 밝히려고 시도하기도 하였다.<sup>62)</sup>

- 49) Waddel, E., 1975, "How the enga cope with frost: response to climatic perturbations in the Central Highlands of New Guinea," *Human Ecology*, Vol. 3, pp. 249-274.
- 50) Wurm, S.A., 1964, "Australian New Guinea Highlands languages and the distribution of their typological features," *American Anthropologist*, Vol. 66, pp. 77-97.
- 51) Bulmer, S., 1964, "Prehistoric stone implements from the New Guinea Highlands," *Oceania*, Vol. 34, pp. 246-268.
- 52) Watson, V., 1955, "Pottery in the Eastern Highlands of New Guinea," *Southwestwestern Journal of Anthropology*, Vol. 11, pp. 121-128.
- 53) Brookfield, H.C., 1964, op. cit., pp. 29-34.
- 54) Brookfield, H.C., 1966, "The Chimbu: The Chimbu: a highland people in New Guinea," in *Geography as Human Ecology* (eds., S.R. Eyre and G.R.J. Jones), London: Edward Arnold, p. 174.
- 55) Sorenson, E.R., 1972, "Socio-ecological change among the fore of New Guinea," *Current Anthropology*, p. 363.
- 56) Brookfield, H.C., 1966, op. cit., pp. 189-192.
- 57) Sorenson, E.R., op. cit., p. 362.
- 58) Feil, D.K., 1982, "From pigs to pearlshells: the transformation of a New Guinea Highlands exchange economy," *American Ethnologist*, Vol. 9, pp. 291-306.
- 59) Downs, J.F. and Ekwall, R.B., op. cit., pp. 169-184.
- 60) 田畠久夫, 1975, "わが國における 山村研究の 系譜とその問題點—木地屋の ムラの 場合一", 人文地理, 第27卷, 第4號, pp. 46-59.
- 61) 相馬正胤, 1970, "四國山岳地方における 土地利用と 山村の 變貌," 地理學評論, 第44卷, 第4號, pp. 301-319.
- 62) 坂口慶治, 1974, "丹波高地における 廃村化と 耕地荒廢の過程," 地理學評論, 第47卷, 第1號, pp. 21-40.
- 63) 朝鮮山林會, 1930, "熙川郡의 火田現況," 朝鮮山林會報, 제66호, pp. 37-47.  
善生永助, 1926, "火田の現状," 朝鮮總督府 調査資料, 第15輯.  
小田内通敏, 1923, 朝鮮部落調查報告書, (第一冊), 火田民編, pp. 1-34.  
橋本傳左衛門, 1928, 火田調查 報告書.  
橋本傳左衛門, 1924, 朝鮮의 火田.  
江原道篇, 1965, 江原道의 火田現況, 607p.

韓國에 있어서 山地農業의 하나로 火田耕作과 山村을 결부시켜 연구해 온 역사는 일제 시대에 까지 거슬러 올라가며 많은 연구 보고서가 있다.<sup>63)</sup> 최근에는 大關嶺 地帶를 중심으로 한 土地利用 形態<sup>64)</sup>를 조사하고 山地開發 方向에 초점을 맞춰 高冷地 農業을 소개하고 있기도 하다.<sup>65)</sup> 또한 山村의 立地의in 特性에 비추어 그의 起源, 形態와 機能을 밝히려고 시도한 것이 있으나 단편적일 뿐 아니라 그의 變化過程을 밝혀내기에는 方法論上 한계에 부딪쳐 온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sup>66)</sup> 平昌地域의 山村家屋의 變貌에 관한 것이 있고<sup>67)</sup>, 山村 住民의 儀式과 信仰, 衣食住, 山村의 住民·經濟·階層構造 및 社會組織을 人類學의 으로 조사한 것은<sup>68)</sup> 그 시

기가 1960년대 초이므로 특정 山村을 時系列의 으로 연구 할 수 있게 해준다.<sup>69)</sup> 森林生態에 관해서도 자연적인 산불에 의한 2次 遷移나, 火田跡地에 있어서의 2次 遷移의 初期群落 發達 등에 관한 연구<sup>70)</sup>가 있어 참고가 된다. 그 중 충청북도 清原郡 일대에 산불이 발생한 山火跡地는 山火後 2~3년째 生活型이나 優點種의 順位가 非山火地와 같게 된다고 하였으며, 遷移는 山火跡地가 非山火地보다 빠르게 進行된다고 보고하였다.<sup>71)</sup> 또한 火田跡地의 2차 遷移는 개망초, 달맞이꽃, 억새의 順으로 群落이 형성되는데 7개년이 걸렸다고, 江原道 洪川郡 北方面, 春城郡 東山面의 火田跡地 廢耕 造林地에서 보고하고 있다.<sup>72)</sup> 최근에 江原道의 天然林(natural

江原道篇, 1976, 火田整理史, 312p.

橋本傳左衛門, 1926, 朝鮮의 火田民, 人文地理 I.

朝鮮總督府篇, 1933, 火田及び火田民, 朝鮮의 聚落(前編), pp. 693-756.

林昌圭, 1973, 火田農業研究: 三陟郡 下長面易屯里 地域中心으로, 서울대 教育大學院 碩士論文, p. 70.

崔德柱, 1957, “韓國의 火田民,” 地理地質學報, 제 3집, 慶南 地理地質學會, pp. 37-47.

趙東奎, 1966, “한국 火田의 분포,” 地理學, 제 2호, 大韓地理學會, pp. 57-65.

小池洋一, 1953, “朝鮮 火田民의 發生,” 人文地理, 第 5號, 第 2卷.

64) 趙東奎, 1969, “大關嶺地域에 있어서 높고 한냉한 地域의 輸作에 관한 地理學的研究,” 慶熙大學校 論文集, 제 6집, pp. 141-199.

趙東奎, 1974, “대관령 화전의 토지 이용형태에 관한 연구: 경영구조를 중심으로,” 慶熙大 論文集, 제 8집, pp. 345-360.

65) 趙東奎, 1970, “高冷地 土地利用의 變貌: 大關嶺의 農業의 土地利用을 中心으로,” 地理學, 제 5호, 大韓地理學會, pp. 59-68.

李昌德, 1973, 江原道 高冷地 農業의 綜合的 開發方向에 關한 研究, 江原大附設 高冷地 農業研究所, 155p.

66) 徐米錫, 1984, 全南求禮地方의 山村에 관한 研究: 土旨面 內東里를 中心으로, 全南大 碩士論文, p. 46.

姜大玄, 1966, “大關嶺附近의 山村의 立地와 形態, 只山 先生華甲紀念論文集,” pp. 9-20.

柳旺烈, 1974, “花開山村의 聚落 研究,” 木浦敎大論文集, 제 12집, pp. 87-100.

吳洪錫, 前揭書, pp. 141-164.

67) 申重盛, 尹珍淑, 1982, “平昌 山村家屋의 變貌,” 地理學叢, 제 10호, pp. 252-262.

68) 韓相福, 1964, “韓國 山村의 研究,” 社會學論叢, 제 1집, pp. 133-169.

韓相福, 1964, “韓國 山村住民의 衣食住,” 社會學報, 제 7집, pp. 17-36.

韓相福, 1966, “韓國 山村住民의 儀式과 信仰,” 韓國社會學, 제 2집, pp. 84-100.

69) 研究地域은 平昌郡 道岩面 龍山 2里, 凤山里 일대이다.

70) 康祥俊·李鍾泰, 1982, “山火跡地의 植生回復에 關한 生態學的研究,” 한국 생태학회지, 韓國生態學會, 제 5권, 제 1호, pp. 54-62.

李愚喆·金鍾鎮·全尚根, 1979, “江原道의 火田跡地에 있어서 第二次 遷移의 初期群落 發達에 關한 研究,” 自然保存研究報告書, 제 1집, pp. 145-166.

洪淳佑·河永七·崔榮吉, 1968, “植生, 土壤 및 土壤微生物에 미치는 불의 效果에 對하여,” 植物學會誌, 제 11권, 제 4호, pp. 119-130.

康祥俊, 1971, “草地의 構造 및 生產性에 미치는 山불의 영향,” 植物學會誌, 제 14권, 제 3호, pp. 96-102.

金玉冕·鄭炫培, 1971, “山火跡地의 生態學的研究—山火後 林地의 生產構造에 對하여,” 林學會誌, 제 12호, pp. 45-54.

金 源, 1978, “산불에 依한 소나무 樹林地의 二次植生에 關하여,” 慶北大學校 教育大學院 論文集, 제 10호, pp. 113-121.

朴奉奎·金鍾熙, 1981, “雄岳山의 植生과 土壤에 미친 산불의 영향,” 植物學會誌, 제 24권, 제 1호, pp. 31-45.

71) 康祥俊·李鍾泰, 1982, 上揭書, p. 61.

72) 李愚喆·金鍾鎮·全尚根, 1979, 上揭書, p. 164.

forert)의 環境과 構造를 밝히려는 시도가 이루어져 인간의 산림 개척에 의한 森林生態의 변화를 엿볼 수 있게 되었다.<sup>73)</sup> 즉, 江原道 麟蹄郡 麟蹄面의 點鳳山 일대에 걸쳐 있는 落葉闊葉樹林은 人爲的인 피해를 입은 우리나라 대부분의 森林이 침나무림 혹은 침나무와 소나무 混生林의 2차림의 양상을 띠는 것과는 대조적으로 단풍나무, 까치막달, 신갈, 물주례, 신갈, 층층, 고로쇠 나무 등이 重要值와 積算優占度가 높은 樹種으로 구성되어 있어 保存의 필요성을 말하고 있다.

#### IV. 山林研究의 方法論

山村은 일정한 農業技術과 耕作方法, 道具 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山地라는 自然的 條件에 적응하여 이룩한 하나의 生活集團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山村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山地라는 自然的 條件과의 관계라든가, 過去에는 그것이 어떠했는가, 또한 適應類型에는 어떠한 종류가 있는가 하는 문제를 충분히 살펴 보아야 하는 것이다. 특히 이들 모두는 空間의in 觀點에서 충분히 논의되어야 하는 것이다.

##### (1) 空間分析과 生態學의 接近

山地라는 自然環境에 인간이 적응해 나가면서 변화시키는 과정을 生態學의in 觀點에서도 논의해 볼 수가 있다. 生態學(ecology)이 有機體와 環境 사이의相互作用과 統合(integration)이 일어나는 프로세스를 밝히려는 분야이고 그의 본

래 연구대상이 生物集團이며 生物種과 環境과의 관계에 초점을 두어 왔으나, 차차 人間을 포함시킨 生態系까지 고려하게 됨으로서<sup>75)</sup> 地理學에서도 그의 接近方法을 도입하기에 이르렀던 것이다. 그것은 人間 자체가 他生物種과 마찬가지로 독자적인 地位(niche)를 가지고 生命의 網(the web of life)에서 영향을 주고 받기 때문이기도 하지만<sup>76)</sup>, 人間이 自然이나 環境을 調節할 수 있는 能力이 커져 他生物種보다 그 영향력을 중시하지 않을 수 없다는 데 이유가 있는 것이다. 生態學의in 모델이 人間을 종속적이고 비효율적인 역할을 가진 것으로 간주한다면 사회와 인간과의 관계를 온전히 이해할 수 없고 또한 지리학적 연구를 위한 기초 자료를 제공받을 수 없다고 한데서도<sup>77)</sup> 찾아 볼 수 있다.

生態學에서 인간 집단을 고려하여 人間과 生物集團, 그리고 人間과 環境이 어떻게 相互作用하는가를 파악하는 것을 중요시하게<sup>78)</sup> 된데서 人間生態學(human ecology)의in 接近方法과 文化生態學(cultural ecology)의in 接近方法이 비롯하게 되는 것이다.

人間生態學(human ecology)은 人口集團에 미친 環境的・社會文化的 影響을 연구하는 틀(framework)이며<sup>79)</sup>, 人口集團을 다른 有機體集團과 동일시하여 인구 집단의 再生產率, 에너지 交換, 性比 등 생물학적인 연구 기법과 측정 방법을 주로 사용한다.<sup>80)</sup> 이는 또한 社會人類學에 도입되어 인구 규모가 작고, 비교적 고립되어 있으며, 단순한 文化를 소유한 人口集團을 연구하는 데도 이용되었으며<sup>81)</sup> 地理學에서도 H.H.

- 73) 尹鍾和・韓相燮・金知洪, 1985, 天然林의 環境과 構造, 제 2 회 江原道內 大學合同學術 세미나(1985. 10. 26), 發表文, pp. 1-22.
- 74) Little, M.A. and Morren, G.E.B., 1976, *Energy, Energetics, and Human Variability*, Dubuque, Iowa: Wm. C. Brown Company, p. 1.
- 75) 李恩淑, 1983, “地理學에 있어서의 文化生態學의 接近,” 「石泉 李燦 博士 華甲紀念論集」, 서울, 教學社, pp. 94-96.
- 76) Ibid., pp. 95-96.
- 77) Chorley, R.J., 1973, 1973, “Geography as human ecology,” in *Directions in Geography* (ed., R.J. Chorley), London: Methuen, p. 157.
- 78) 李恩淑, 前揭論文, pp. 95-96. 生態學의 對象에 인간을 포함시킬 때 人間과 環境사이의 관계에 대한 接近方式은 人間生態學과 文化生態學을 들 수 있고, 人間과 人間에 대한 관계는 社會生態學의 接近方式이 있다.
- 79) Little, M.A. and Morren, G.E.B., op. cit., p. 2.
- 80) Clarkson, J.D., 1970, “Ecology and spatial analysis,” *Annals, Association of American Geographers*, Vol. 60, p. 710.
- 81) Ibid., p. 711.

Barrows가 처음으로 도입하였다.<sup>82)</sup> J.H. Steward는 環境可能論과 傳播論의 接近(diffusionist approach)에 있어서, 有義體와 超有機體를 구분하지 않고 동일하게 적용한데 많은 문제점을 야기 했다고 비판하면서 그의 구분을 주장하였다.<sup>83)</sup> 또한 文化도 核心部分(core)과 나머지 부분으로 나누어지며 core는 바로 超有機體에 해당하는 것으로 文化에 의해 刻印(print)된 環境의 利用方式과 관련시킬 수 있겠다고 하였다. 여기서 core란 것은 문화지역의 core area와 동일한 의미가 아니다. J.H. Steward는 core란 한 文化를 구성하는 諸文化 要素(traits of culture) 들중 한 文化的 特性을 나타내는 주요한 文化要素를 말한다고 하였다.

文化를 식량 생산 기술과 연결시켜 새로운 技術을 습득하게 되면 그것은 人間과 有機體의 관계를 선택하게 하고 동시에 生物學의 群落에서 自身의 위치를 변화시켜 나가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하였다.<sup>84)</sup> 이를 文化生態學의 接近方法論이라고 하며, 生態學의 接近方法에서 文化的 要素에 대한 고찰을 중시하게 된 것을 말한다. 다시 말해 文化生態學은 生態系內에서 人間集團의 位置와 役割을 이해하려는 것으로 시스템 이론(system theory)과 生態學的 모델을 접목시킨 것이라고 할 수 있다.<sup>85)</sup> 生態系 内에서 人間集團의 위치와 역할을 고려하고 人間이 環

境에 어떻게 적응하는가 하는 適應(adaptation)의 문제가 중요하게 되며, 이러한 適應을 연구하는데 있어 時間의 次元을 고려하여 時間을 통한 有機體의 變化過程에 주안점을 두게 되는 것이다.<sup>86)</sup>

文化生態學이 人間 生態學과 다른 점은 文化生態學이 어떤 특정한 文化的 環境의 狀況에 응용되어 질 수 있는一般的原理를 도출하는 것이 아니라 상이한 지역을 특정짓는 특정한 文化的 樣相이나 文化類型의 起源을 해설하고자 하는데 있다. 즉 文化生態學은 文化가 初期의 文化에 의해서 결정된다는 文化概念을 非文化的要素인 地域環境을 도입하여 해석하고자 하는 것이다.<sup>87)</sup>

地理學과 生態學이 둘 다 地表上의 現象들의 分布·組織·形態에 관심을 둔다는 면에서<sup>88)</sup> 서로 밀접한 관계가 있다. 生態學이란 말을 최초로 사용한 E. Haeckel 자신도 生態學은 分布學(chorology)의 연구에 의해서 보완되어져야 한다고 하였으며<sup>89)</sup>, 地理學에서도 生態學의 觀點의 도입을 요구하였다. S.R. Eyre는 地理學者가 生態學의 觀點을 채택하게 됨으로써 단순한 決定論의思考나 그것에 대한 잘못된 解釋을 탈피할 수 있도록 하는 方法論을 가짐 수 있다고 하였다.<sup>90)</sup> F.R. Forsberg도 地理學에서의 生態學의 接近은 학문 영역 간의 조화를 가져오

- 82) James, P.E., 1972, *All Possible World A History of Geographical Ideas*, New York: The Bobbs-Merrill, p. 397. 그러나 H.H. Barrows는 그 자신이 적절한 研究方法을 제시하지 못하였다는 점 등으로 비판을 받았다.
- 83) Little, M.A. and Morren, G.E.B., op. cit., p. 4.
- 84) Steward, J.H., 1955, "The concept and method of cultural ecology," in *Man, Space, and Environment* (eds., P.W. English and R.C. Mayfield),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pp. 124-127.
- 85) Little, M.A. and Morren, G.E.B., op. cit., pp. 3-5.
- 人間을 고려한 生態系는 매우 복잡하여 연구하기가 어렵다. 따라서 生物學의 研究方法과 人間生態學의 研究方法이 서로 상대방의 研究方法을 도입하여 연구해 왜다. 그리하여 system 理論과 결합한 生態學의 모델은 그 두 接近方法을 잘 결합시킬 수 있는데, cultural ecology도 그 중의 하나이다.
- 86) Clarkson, J.D., op., pp. 712-715.
- 適應研究는 經濟發達問題에 관련된 政策研究에 매우 有用한 것이며, 또한 그 研究는 단일 學問의 고유한 研究主題가 아니다. 만약 그것을 단일 學問의 方法으로 적용하게 될 경우 실패할 가능성이 많다고 지적했다. 適應研究는 본질적으로 生態學의 接近方法을 요하며, 특히 人間과 自然에 대한 統一된 見解를 바탕으로 한 文化生態學은 이러한 研究를 할 때 보다 강력하고 유용한 사고의 틀을 제공해 준다.
- 87) 李恩淑, 前揭書, p. 99.
- 88) Slobodkin, L.B., 1962, "Energy in animal ecology," *Advances in Ecological Research*, Vol. 1, p. 709.
- 89) Clarkson, J.D., op. cit., p. 709.
- 90) Stoddart, D.R., 1964, "Geography and the ecological approach: the ecosystem as a geographic principle and method" *Man, Space, and Environment* (eds., P.W. English and R.C. Mayfield),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p. 156.

고, 地理學이 學問的인 지지를 얻을 수 있도록 해준다고 보았다.<sup>91)</sup> D.R. Stoddart는 生態學은 環境 内의 諸關係를 연구하고, 地理學은 空間關係를 연구하는 것으로, 空間分析(spatial analysis)은 일정한 시스템의 틀 안에서 연구되어져야 하며 그 중 하나가 生態系(ecosystem)로서 生態學의 원리가 地理學에 적용되어 질 수 있는 것이라고<sup>92)</sup> 하였다. 동시에 生態系는 그 경계가 공간적 맥락에서 범위를 정할 수 밖에 없다고 하여 生態學과 空間分析은 서로 상호 의존적인 관계에 놓여 있다고 보았다. J.D. Clarkson은 文化 生態學이 地理學과 유사한 관련을 맺고 있어, 특정 활동의 입지에 영향을 미치는 因子(factors)들을 분석하는 空間分析이 macro한 관점에서 문제를 다루는 반면, 生態學의 接近은 活動 그 자체를 결정하는 因子들의相互作用에 관심을 두고, 여러 因子들의相互作用에 의해 형성되는 시스템(system)이 어떻게 기능하고 있는가를 중요시하게 된다<sup>93)</sup>고 밝혔다. 따라서 生態學의 接近方法은 micro한 연구를 주로하게 되는 것이다.<sup>94)</sup>

空間的 分析과 生態學의 接近方法 즉 macro approach와 micro approach를 연결시켜 줄 수 있는 고리를 필요로 하게 되었고 J.D. Clarkson은 그 고리를 適應研究(adaptive research)에서 찾으려고 하였다.<sup>95)</sup> 適應研究는 生物學的, 文化的 觀點에서 人口集團과 環境과의相互作用을 과학하는 것으로 文化生生態學의 概念에 해당하는 것이다.<sup>96)</sup> 모든 生態學의 기본 개념 속에는 環境適應이 내포되어 있지만 文化生生態學에서는 이러한

한 適應 메카니즘과 文化的 水準을 연결시켜 고찰하려고 하는 것이다.<sup>97)</sup> J.H. Steward는 이렇게 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절차가 필요하다고 하였다. 즉 먼저 生產技術과 環境 사이의相互關係가 분석되어져야 하고, 다음에 特定場所에서의 特定技術에 의한 開拓과 관련 行動類型이 분석되어져야 하며, 마지막으로 環境을 개척하는데 필요한 行動類型이 文化的 다른 양상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가를 확인하는 것이다.<sup>98)</sup>

결국 生態學의 接近方法은 地理學에서의 하나의 主題인 空間分析을 하는데 유용한 개념적 도구를 제시하고 地理的 現象에 새로운 안목을 가질 수 있게 해 준다. 특히 文化生生態學은 社會科學으로서의 地理學이 가능하게 하는 틈틈한 디딤돌이 될 수 있겠고, 環境에 대한 文化的 適應이 어떻게 일어났는지를 確認할 수 있게 하여, 文化에 의한 空間的 表現으로서의 독특한 空間 패턴을 찾아 낼 수 있게 하는 것이다. 바로 이것은 P.W. Mayfield와 R.C. English의 編著에서 확인할 수 있다. 즉 그들은 地理學的研究에 속하는 刷新의擴散(innovation diffusion), 地域體系(regional system), 空間秩序(spatial order)는 生態學의 接近을 내재하고 있다고 보았다.<sup>99)</sup>

## (2) Ecosystem과 Community

生態系(ecosystem)란 복잡한 生態的 過程을 단순화시키는 개념적 도구로서<sup>100)</sup> 여러 가지 生物學的 概念이 내포되어 있는 일종의 시스템(system)이다.<sup>101)</sup> 또한 이것은 통상적으로 편의상 구

- 91) Forsberg, F.R., 1976, "Geography, ecology, and biography," *Annals, Association of American Geographers*, Vol. 66, p. 117.
- 92) Stoddart, D.R., op. cit., p. 157.
- 93) Clarkson, J.D., op. cit., p. 706.
- 94) Macro와 micro의 意味는 단순히 研究地域 혹은 對象이 복잡한가 단순한가 하는 문제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중요한 것은 一般化 水準(level of abstraction)이다. 보다 macro한 연구가 되려면 一般化水準을 높이되, 기능적으로 일관되고, 그 부분들은 전체와 조화를 이루도록 하여야 한다. Ibid., 716.
- 95) Warntz, W., 1973, "New geography as general system theory—old social physics writ large?", in *Directions in Geography* (ed. R.J. Chorley), London: Methuen, p. 89.
- 96) Little, A.M. and Morren, G.E.B., op. cit., pp. 3-4.
- 97) 李恩淑, 前揭論文, p. 100.
- 98) Steward, J.H., op. cit., pp. 127-129.
- 99) English, P.W. and Mayfield, R.C., (eds.) 1972, *Man, Space, and Environment: Concepts in Contemporary Human Geography*,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p. 115.
- 100) Michael, P.W. and Morren, G.E.B., op. cit., p. 1.
- 101) Stoddart, D.R., 1967, "Organism and ecosystem as geographical models," in *Models in Geography* (eds. R.J. Chorley and P. Haggett), London: Methuen, p. 524.

획되어 지고 일정한 限界를 갖지 않으며,<sup>102)</sup> 局地的(local)인 것, 地域的(regional)인 것, 地球的(global)인 것에 이르기까지 階層構造를 가지고 있다.<sup>103)</sup> 즉 아주 작은 國地적 단위의 生態系로부터 地球全體의 次元에서의 生態系에 이르기까지 抽出 水準(level of abstraction)에 따라 그 범위가 달라진다.<sup>104)</sup> 이 계층적 의미의 生態系는 각 수준 내에서 自體 完結性을 지니게 되며 동시에 보다 큰 生態系에 편입되게 된다. 이러한 階層的 構造(hierarchical structure)는 일반 시스템 이론의 주요 원리의 하나이며,<sup>105)</sup> 어떤 地理的 縮尺(scale)을 필요로 하게 되는 셈이다.

한편, 生態系(ecosystem) 내부에서는 그構成要素들이 서로 기능적으로 연결되어 있으면서 하나의 통일된 전체를 이루고 있다. 즉 生態系(ecosystem)는 그것을 구성하는 有機, 無機的要素의 相互作用을 통해 통합되어져 있는 하나의 全體(whole)이며, 이때의 相互作用이란 바로 生物間, 無生物과 生物間에 일어나는 循環的, 非循環的인 물질이나 에너지의 흐름을 말한다.<sup>106)</sup> 각 생물과 무생물은 물질과 에너지의 흐름이라는 과정 속에 위치한 각 地位(niche)에서 고유한 기능을 가지고 있다.<sup>107)</sup> 흔히 地位는 棲息地(habitat)와 混用하기도 하는데 E.P. Odum은 양자를 구분하여, 서식지는 한 유기체가 사는 장소이며, 地位란 유기체가 生態系 혹은 群落(Community)內에서의 空間的位置 뿐만 아니라 機能的役割도 포함하는 보다 포괄적 개념이라고 말하였다.<sup>108)</sup> 이 概念은 社會科學에 도입되어 전

체 사회 내에서의 한 집단의 기능으로 해석되어 진다. 機能은 活動(activity)이며, 그것은 전혀 공간적 차원에서 분리되어질 수 없는 것이다. T.F. Love에 의하면 한 人間集團의 地位는 空間的 時間的 次元에서의 資源에 대한 集團構成員間의 관계를 나타내는 總體的 表現이라고 하였다.<sup>109)</sup> 이처럼 機能的으로 통합되어지는 각 부분들로 구성된 生態系 内에서 한部分의 變化는 점진적으로 전체 生態系 内에서의 變化를 초래하는데, 이것은 한 부분의 變化에 적응해 나가는 전체 생태계의 mechanism 즉 allometric process를 나타낸다. 그것은 물론 한 有機體를 둘러싼 環境의 變化가 그 有機體 뿐만 아니라 그 有機體 外의 全體 生態系에 대해서도 새롭게 適應하기를 요구하는 데서 기인한다. 이것이 일반 시스템(system) 理論의 기본 원리중의 하나이다. allometric process는 부분에서의 變化를 통해 일시적인 불안정 상태에 처해 있는 生態系가 점진적으로 균형상태에 도달해 나간다는 것을 말한다.<sup>110)</sup>

오늘날 社會科學에서 生物學的 群落(community) 개념을 인간사회의 共同體(community)와 社會組織(social organization)에 적용시켜 설명하고 있다. 社會組織은 특정 役割을 수행하는 집단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들 각 집단의 社會的生活類型은 空間적으로 동일하지 않을 뿐 아니라 時間에 따라 變化해 나가는 것이다. 集團 간의 生活方式의 차이는 그 집단들이 처해 있는 自然的, 社會·文化的 環境의 차이가 낳은 產物

102) Forsberg, F.R., op. cit., p. 118.

103) Dale, M.B., 1969, "System analysis and ecology," *Ecology*, Vol. 51, p. 3.

生態系란 一般시스템의 특수한 경우이며, 따라서 一般 시스템의 모든 屬性를 가지고 있다고 하였다. 階層構造(hierarchical structure)란 일반시스템의 기본원리중 하나이다.

104) Forsberg, F.R., op. cit., p. 119.

105) Johnston, R.J., (ed.) 1981, "General system theory," in *The Dictionary of Human Geography*, New York: The Free Press, pp. 129-130. 이것 이외에도 allometric한 成長과 어떤 시스템의 엔트로피 상태 등이 있다.

106) Duncan, O.T., 1964, "Social organization and the ecosystems" in *Handbook of Modern Sociology* (eds., Faris, R.E.L.) Chicago: Rand McNally and Company, p. 37.

107) Love, T.F., 1977, "Ecological niche theory in sociocultural anthropology: a conceptual framework and an application," *American Ethnologist*, Vol. 4, pp. 27-29.

108) Odum, E.P., 1971, *Fundamentals of Ecology*, (3rd ed.), London: W.B. Saunders Company, p. 234.

109) Love, T.F., op. cit., p. 32.

110) 이는 전술한 바와 같이 一般 시스템이 가지고 있는 세 가지 특징 중의 하나이다.

이라고 보아야 한다.<sup>111)</sup> W.B. Morgan과 R.P. Moss는 人間共同體(human community)를 生態學的 意味와 社會學의 意味로 구분하여 說明하였다. 生態學的 意味로는 서로 영향을 주고 받는 人間을 포함한 서로 다른 種의 集合으로 정의하고 있는 반면, 社會學의 意味로는 다양한 利害와 機能을 가진 個人들로서 구성되어 있는 社會的으로 經濟的으로 하나의 단위인 人間集合體로 정의하고 있다.<sup>112)</sup> 또한 A.H. Hawley는 “人間生態學은 日常生活을 영위하는 人口集團에 관심을 가진다. 그러한 人口集團은 地理的으로 局地化되어 있으면서 일정 場所를 점유하고 있다. 占有는 적용이라는 기본 문제와 연관되어 진다.”고<sup>113)</sup> 말하였다. W.B. Morgan and R.P. Moss는 共同體(Community)의 개념을 地理學에도 입할 것을 주장하면서, 地理學에서 共同體(community)構念의 도입은 種 자체를 연구하는 것이 아니라 일정 空間內部에 존재하는 集團의 構造와 機能을 연구하는 것으로, 그 구조와 기능은 活動의 公간적 표현인 土地利用方式에서 찾을 수 있다고 하였다.<sup>114)</sup>

하나의 독립된 集團의 空間的 表現으로서의 共同體(Community)는 自然部落 단위로부터 보다 넓은, 광범위한 지역집단까지 포함할 수 있는 것이다. 하나의 空間的 社會的 單位는 그 내부에 존재하는 모든 구성부분들이 서로 기능적으로 연결되어 自己完結性을 가지면서 보다 큰 空間的 社會的 單位 속에 포함된다. 또한 地域(region)이란 사람의 이동이나 팽창, 수축에 따라 항상 변하는 空間(area)이다. 또한 지역의 자연환경에 대한 연구는 共同體(community)라

는 관점에서 행해져서 나중에 인간에 관한 연구(human studies)로 통합되어야 하며, 지역연구를 하는 방법자체도 인간이 어떻게 적응하는가 하는 문제로부터 시작해서 자연환경이 나중에 연구되어야 한다는 W.B. Morgan and R.P. Moss 관점과도 연결된다.<sup>115)</sup>

A.H. Hawley는 지역 집단으로서의 共同體(community)는 일상적인 필요에 의해 상호관련되고 통합되어 있는 地域(area)을 포함하므로 한개 혹은 수개의 日常生活 中心地를 중심으로 한 그 外部地域까지 포함되어야 한다고<sup>116)</sup> 말한다. 그것은 교통의 발달과 외부와의 相互作用의 필요성이 증대되어 종래 自給自足의이고 密集(compact)된 共同體(community)의 意味를 거의 상실한 것을 뜻한다.<sup>117)</sup> 즉 독립되고 자급자족적이던 共同體(community)는 최근에 약화되어 하나 혹은 두개의 큰 중심지에 종속되었다는 것이며, 이러한 共同體(community)가 중요하다는 말이다.<sup>118)</sup>

### (3) 山地 生態系(Mountain ecosystem)와 山村研究

山地環境과 人間集團과의 關係 혹은 山地生態系(component)의 構成成分이 변화하게 되면 다른 成分에 영향을 미치게 되어 전체 시스템(system)이 바뀌게 되는 生態系(ecosystem)을 山村 社會集團에 적용시킨 대표적인 예로 R.A. Rappaport 등을 들 수 있다.<sup>119)</sup> 그는 뉴우기니의 Bismarck 山地에 있는, 규모가 작고 고립되어 있으며 自足的인 Tsembaga Maring 集團이 두가지 유형의 시스템을 갖고 있다고 하며

111) Richerson, P.J. 1977, "Ecology and human ecology: a comparison of theories in the biological and social sciences," *American Ethnologist*, Vol., 4, pp. 1-2.

112) Morgan, W.B. and Moss, R.P., 1965, "Geography and ecology: the concept of the community and its relation to environment," *Annals, Association of American Geographers*, Vol., 55, p. 348.

113) Hawley, A.H., 1950, *Human Ecology: A Theory of Community Structure*, New York; the Ronald Press Company, p. 80.

114) Morgan, W.B. and Moss, R.P., op. cit., p. 349.

115) Ibid., p. 342. 이들은 community를 특정 場所에서 특정한 文化를 가진 人口集團으로 볼 때, 다른 文化는 環境에 대한 反應이나 利用方式도 다르다고 보고 地域의 定義 자체도 자연적인 면을 기초로 하기 보다는 community를 기초로 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116) Hawley, A.H., op. cit., pp. 257-258.

117) Ibid., p. 255.

118) Ibid., p. 258.

119) Rappaport, R.A., 1968, *Pigs for the Ecology of a New Guinea People*, New Haven: Yale University

돼지 謝肉祭의 周期(ritual cycle)는 自己調節機能(homeostatic regulation)이라고 보았다. 그러나 이러한 方法論이 Maring pig cycle의 構造가 어떻게 해서 생겨났으며, 오늘날의 경제개발에 따라 장래 어떻게 바뀔 것인가 하는 문제를 해결해 주지 못하고 있다. 이는 靜的인 에코시스템의 接近方法(steady-state ecosystem approach)이 갖는 한계일 뿐 아니라 自然 生態系가 다양한 방법으로 安定 狀態를 향해 自己調節을 해나가는데 반해, 人間을 포함하는 地域 시스템은 보다 강한 ‘正’의 피드백(positive feedback)을 갖는다는 데 이유가 있다. 즉 인구가 계속 증가하고 물질적인 欲望이 늘어나며, 刷新의擴散이 계속되는 地球的인 시스템은 더욱 더 변화무쌍(dynamic)해져 方法論上의 어려움이 있을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sup>120)</sup> 특히 시스템을 이루고 있는 여러 成分을 計量化하려는 노력을 최근에 하게 되므로써, 이들의 相互 關係를 보다 명확히 설명할 수 있게 되었다.<sup>121)</sup> 山村 ecosystem의 變化를 nutrient cycle과 energy flow로 분석한 G.E.B. Morren의 研究<sup>122)</sup> 등이 좋은 예이다.

그러나 山村을 연구하기 위해 에코시스템의 概念을 適用한다고 할 때 다른 시스템 연구와 마찬가지로 중요한 프로세스(process)를 주관적으로 판단하고 있지 않으면, 아무리 그 構成成分이나 그들의 相互作用을 計量化했다하더라도 소용이 없는 것이다. 또한 歷史的인 變化過程을 중시할 경우 직접 測定하거나 計量化할 수 없으므로 시스템에 대한 解析을 어떻게 할 것인가가 더욱 문제가 될 수 밖에 없다.<sup>123)</sup> 한편 土地利用, 農器具나 技術, 作物, 家畜, 農事曆, 家屋形態나 構造, 올타리 모양이나 재료, 방언 등은

특정 자연 환경 속에서 이루어진 生活樣式이며, 農村景觀 위에 나타나는 다양한 요소인 셈이다. 이들 要素를 중심으로 여러 가지 農業 패턴을 찾아볼 수 있고, 이러한 패턴을 農業 시스템으로 보고 서로 비교해 보면, 變化의 要因을 分析한研究가 있다. 이는 탄자니아의 Mbozi 地域 共同體(community)를 生態學的인 觀點에서 풀어나간 훌륭한 예이다.<sup>124)</sup>

#### IV. 結論

本研究는 韓國 山村의 研究 意義를 살펴보고, 國內外 山村 關係文獻을 검토하여 그의 研究動向을 알아보아 山村 研究의 方法論을 찾아 보려고 하였다.

山林地를 개간하여 農耕地로 일구고 林產資源을 이용하는 가운데 성립된 山村을 研究하는 것은 韓國村落의 起源과 發達過程을 究明하는 하나의 실마리가 될 수 있으며, 이는 韓國村落社會의 일면을 밝힐 수 있는 디딤돌이 될 것으로 사료된다. 왜냐하면 韓國 農業의 發達史를 조금이라도 고려한다면 韓國의 村落은 山林地와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으며, 오늘날의 農村이 아주 오래전에 山林을 개간하여 이룩되어 온 빨자취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山間地域은 비교적 고립되어 있고 人口規模가 작아 쉽게 일반화될 수 있으며, 自然的인 制約이 平地보다 크므로 山地 開拓過程을 쉽게 찾아낼 수 있는 것도 하나의 이유가 된다.

이러한 立地의in 特性 때문에 生態學的인 接近方法이 가능하다. 自然環境과 人間集團과의 關係를 밝히려는 하나의 方法論인 에코시스템적接近方法은 靜態의이고 微細한 地域에 더 잘 적

Press, 311p.

Smith, J.M.B., 1977, "Man's impact upon some New Guinea Mountain ecosystems," in *Subsistence and Survival* (eds., T.P. Bayliss-Smith and R.G. Feachem), pp. 185-214.

120) Bayliss-Smith, T.P., 1977, "Human ecology and island populations: the problems of change," in *Subsistence and Survival* (eds., T.P. Bayliss-Smith and R.G. Feachem), pp. 15-17.

121) Ibid., pp. 17-18.

122) Morren, G.E.B., 1977, "From hunting to herding: pigs and the control of energy in montane New Guinea," in *Subsistence and Survival* (eds., T.P. Bayliss-Smith and R.G. Feachem), pp. 273-315.

123) Bayliss-Smith, T.P., op. cit., pp. 13-14.

124) Knight, C.G., 1974, *Ecology and Change: Rural Modernization in an African Community*, New York: Academic Press, 300p.

용될 수 있다고 본다. 外國의 대부분 山村研究가 山地의 地形과 氣候, 森林生態(forest ecology), 作物의 普及, 耕作技術, 土地 耕作方法, 土地 所有關係, 農耕歲時, 山村 家屋構造, 山村社會 등을 모두 고려하여 이들의 상호관계를 밝히려는 데 주력하고 있다. 게다가 外國의 경우는 그 연구 지역이 안데스나 뉴우기니, 티벳 등으로 해발고도가 1,500m에서 6,000m 이상에 걸쳐 있는 관계로 山地生態系(mountain ecosystem)의 특징이 잘 나타나, 山地에의 適應이나 高度에 따른 山村社會의 關係에 관한 문제를 중요하게

다룰 수 있으나, 韓國의 경우는 대부분 溫帶闊葉樹林으로 덮혀 있으며 垂直高度가 높지 않은 관계로 山村研究의 主題가 상당히 제한될 수 밖에 없다. 기존의 山村研究도 火田農業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이 고작이다. 또한 經濟開發에 따른 외부지역과의 의존 관계가 뉴우기니나 티벳보다 심화되어 있으므로 動態的인 면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고, 결국 計量的인 모델을 제시하기에는 어려울 것으로 본다. 그러나 山村의 動態的인 變化過程을 生態學的인 側面에서 보다 깊이 연구할 수 있다고 본다.

# A Review of the Literature and Methodological Discussion of the Montane Settlement Study

Han Suk Ock\*

## Summary

This paper aims to discuss the reasons why the study of montane settlements in Korea is important, and reviews issues and problems of this studies both in Korea and abroad, with a special focus on the investigation of the methodology to conduct this research.

The montane settlements which originated from clearing forest and making open fields, is connected with the origin and development of Korean settlements. In other words, the agricultural societies are not quite distinct from the montane communities in Korea.

Major research trends of the mountain settlement studies could be broadly divided into four domains: 1) forest ecology pertaining to the

disturbance effect on forest; 2) adaptation to the high altitude; 3) agriculture in the mountain; 4) montane community.

At the same time researchers in the montane settlement study restrict their attention to the human and cultural ecological approach because of the greater cultural unity in small populations, different physical environment, and isolation of the mountain. However, the investigator, coping with the complexity of the montane community, in particular, the interaction of man with his mountain environment, should define the ecosystem carefully instead of a steady state ecosystem approach and quantitative information about the links and components of the system which provide offering only limited insights.